

2022
11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성료

06 KAMT NEWS

국제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 인정시험 실시

09 NOTICE

면허신고 QnA

10 SPECIAL

구본경 과학회장 임상병리사 업권관련 용어

제478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감염병 체외진단 퍼스트무버 (주)코젠바이오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대중, 장성호, 이지혜
기 자 최재석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2022년 제5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성료

- '보건의료기사의 미래 비전과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주제로 개최
- 장인호 총회장 '44만 의료기사들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노력할 것'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22년 제5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이 '보건의료기사의 미래 비전과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주제로 2022년 11월 11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날 기념식에는 8개 보건의료기사단체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보건복지부 임대식 과장, 전재진 비서관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법안들에 대한 심층토론 및 면허신고제 관련 논의를 통해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수호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보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11월 개최된다.

올 해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의 주제는 '보건의료기사의 미래 비전과 면허의 체계적 관리'로 8개단체 44만 의료기사들의 더욱 체계적인 면허관리를 통해 점차 발전하는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면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선정했다.

의기총 조미숙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장인호 총회장의 기념사와, 정춘숙 위원장의 축사, 표창장 수여식으로 이루어진 1부 기념식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의 '의기총 발의 법안', 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윤리법무위원장의 '면허신고제 관리방안 확립 및 제도 개선안' 발표로 이뤄진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보건의료기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권익신장과 위상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보건의료분야 의료기사 8개 단체가 소속된 단체로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와 발전, 그리고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나다 순) 총 44만여 회원이 가입된 보건의료분야 단체이다. 현 의기총 회장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인 장인호 회장이 맡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478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 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13일(목) 19시 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47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총원 45명중 3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 △총무부 IFBLS 2022 오프라인 이수자 결과, IFBLS 2022 온라인 이수 방법 안내, 차기 상임이사회 일정 안내 △재무부 8월 협회비 교부금 지급, 2022년 재산세 납부 △학술부 제12차,13차 IFBLS 학술분과회의 진행, IFBLS 학술위우너회 회의 △교육부 9월달 외부기관 보수교육 이수 현황, 2022년 시도회 보수교육 일정 안내, 2023년 시도회 및 분과학회 보수교육 계획서 접수 안내, 전문임상병리사 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2년 온라인교육 강사 모집 안내 △정보통신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미팅 및 IFBLS VOD 시스템 회의 △법제부 차기 제5차 법제위원회 일정 안내 △국제부 ASCPi 위원회 - ASCP BOC 회의 진행, KAMT-AMTT(태국) 대표단 회의, KAMT-JAMT(일본) 대표단 회의, AAMLS BOD 회의, IFBLS CD 회의 및 GAD 회의 진행 △중소병원본부 전국 16개 시·도 1.2차 의료기관 임상병리사 실태조사, '정확한 공단검진검사를 위한 공익신고' IF팀 진행사항이 보고됐다. 이후 이어진 부의안건 심의·의결사항으로는 '사무국 직제 개편에 따른 협회

제규정 개정의 건 (총무부 발의)으로 바뀐 사무국 직책 명칭과 더불어 오류사항들을 수정했으며, 협회장은 IFBLS 2022를 성공적으로 마쳐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말하며 제478차 상임이사회를 폐회했다.



중양회 동정

- 10월 5일 IFBLS 2022 개최
- 10월 9일 IFBLS 2022 폐회
- 10월 13일 478차 상임이사회
- 10월 14일 제1차 재건축 공정 회의
- 10월 19일 제4차 임상병리사 업권 및 정책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
- 10월 20일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 10월 21일 학술발전위원회 회의
- 10월 22일 제5차 법제 위원회
제4차 채혈로 산정 TF 위원회
- 10월 24일 온라인 보수교육(웨비나) 운영회의
- 10월 25일 사무국 직원 면접
- 10월 27일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

장인호 협회장 동정

- 10월 5일 IFBLS 2022 개최
- 10월 9일 IFBLS 2022 폐회
- 10월 11일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회의
간호법비상대책위원회 회의
- 10월 13일 478차 상임이사회
- 10월 14일 제1차 재건축 공정 회의
- 10월 21일 목포과학대 총장 간담회
- 10월 22일 원광대학교 방문
- 10월 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
- 10월 25일 간호법 반대 집회 천조 연설
- 10월 27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대식 과장 간담회
- 10월 2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결산위원회 회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 진행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진행하는 지난 10월 20일(목)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봉 이사, 안영희 학회장이 나섰다. 먼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기봉 이사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피켓과 함께 국회 앞에 서서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노고를 간호사 직역만의 전유물로 삼아 그 권리와 이익을 독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전문성에 따라 정해진 업무영역을 지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를 이어간 안영희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처우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을 직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1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후원협력사 간담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1월 9일(수)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성공적인 종합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후원협력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30여개의 업체가 방문해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후원협력사 간담회는 기원진 IFBLS 2022 조직위원장의 감사인사말과 장인호 협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으며 이어 임대진 총무이사가 사회를 이어받아

IFBLS 2022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결과보고를 통해 총30개국에서 11,151명이 참석한 성공적인 학회였음을 밝히며 내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열릴 제61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학술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충남지역 7개 대학 임상병리학과 학과장 간담회 진행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이상훈)는 10월 28일(금) 17시부터 천안 청당정원에서 충남지역 대학 임상병리학과 학과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청남도 이상훈 회장, 전제근, 인원과 부회장 외9명의 임원진이 참석했고, 나사렛대학교 김홍성 학과장, 순천향대학교 엄용빈 학과장, 호서대학교 박상정 학과장, 해전대학교 이동섭 학과장, 신성대학교 김혜영 학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사안으로는 채혈학 개설 가능 여부와 채혈에 대한 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논했다. 또한 충남도회는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2개 대학교(남서울 대학교, 단국 대학교)를 포함한 7개 대학교들과 지속적으로 산학협력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임상병리사회

전라북도임상병리사회,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생명나눔 헌혈 협약식 체결

전라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이형섭)는 지난 10월 20일(목) 전라북도혈액원 3층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생명나눔 헌혈 협약식을 가졌다. 생명나눔 헌혈 협약식은 대한임상병리사회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헌혈 참여 유도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맺는 업무협약이다. 이형섭 전북도회 회장은 "생명의 소중함을 가꾸는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선진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인천광역시 원로자문회와의 모임 가져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0월 4일 인천광역시 원로자문회(회장 서한익)와의 모임을 가졌다. 한 해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가지는 원로자문회와의 모임은 인천시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는 자리로 지난 5월 3일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이다. 김한규 인천시회장은 모임에 참석하신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문위원분들을 모시는 이러한 뜻 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IFBLS서 심포지엄 성공적 개최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회장 황유연)는 지난 제35회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회의 셋째 날인 10월 7일에 Clinical Laboratory Microbiology Symposium을 진행했다. 연자로는 △을지대학교 이송희(Improving Intestinal Function of Neobiotics and Predicting Potential Functioning of Intestinal Microorganisms) △삼성서울병원 조은정(Candida Auris Infection: A Single Center Experience from 2019 to 202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김태라(The Rapid Detection with the FilmArray Respiratory Panel in Children) △Education lecture 허나영(Biomarkers of protection and vaccine efficacy) 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좌장은 황유연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회장), 부좌장에는 △육근돌(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부회장)이 맡아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시험 실시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일원역 삼성생명빌딩 강연실에서 미생물전문 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자격시험은 중앙회 파견인원과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위원의 감독 하에 총 23 명이 응시했고, 17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어 학술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지방 미생물검사실장 집담회를 실시해 현지 병원의 실태와 최신 임상미생물 검사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12월 3일 2022년 제31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추계학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2022년 11월 28일까지)가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2 KIMES BUSAN 참여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3일간 개최한 2022 KIMES BUSAN(부산 의료기기 전시회) 참여했다. 부산시회는 홍보부스를 마련해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홍보했으며, 학생들에게 임상병리학과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외에도 퀴즈 프로그램과 피부표면 세균 수 측정 등 통한 손 씻기 프로그램을 구성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중소병원의 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홍보를 진행했다.

2022년도 제1차 보수교육 진행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지난 10월 29일 14시 2022 부산시회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임상병리사 역할을 주제로 한 UCC 공모전 수상작을 함께 진행했다. 보수교육은 △요청사 정도관리와 표준화 △스코로 나 번의 검사 방법 및 평가 △검진기관 평가 운영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 및 기준 등으로 구성했다. 회원들은 교육 중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 및 기준' 교육이 임상병리사에게 또 다른 직업 방향을 제시해준 뜻 깊은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경상북도의료기사연합회와 일손돕기 봉사활동 진행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지난 10월 22일 경상북도의료기사연합회(물리치료사회, 방사선사회, 안경사회, 임상병리사회, 작업치료사회, 치과기공사회, 치과위생사회, 이상 가나다순)와 함께 경상북도 매천면에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경북도회에서는 이미경 국제이사, 박소현 경산분회장, 최은영 포항2분회장, 이미경 영춘분회장, 황은진 영천분회 총무가 참여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통해 일손을 도와 지역 주민들의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줬다.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원들과 IFBLS 2022 참여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35차 세계임상병리사연맹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회의'에 많은 회원들과 함께 참가했다. 광주시회 11~12대 회장을 역임하신 기원진 위원장님께서 학술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성대한 막을 올리게 되어 개최식에 참석하신 광주시회 회원들에게는 무엇보다 뜻깊고 의미 있는 대회가 됐다.

또한 광주시회 임은서 선생님은 중소병원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업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공유를 통해 업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로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회 서정훈회장은 "다양한 컨텐츠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코로나로 지친 국내,외 회원들에게 '볼거리'와 '즐거거리'를 제공해주어 참가기간 내내 힐링캠프에 참여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신 모든 조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대회장인신 장인호 협회장님과 기원진 조직위원장님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고 전했다.



조직세포검사학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국제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 인정시험 실시

조직세포검사학회(회장 백운철)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지난 10월9일 제35차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이하 IFBLS 2022)가 개최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인정시험(CT IAC)을 실시했다.

이번 자격인정시험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세포병리사'를 '세포전문임상병리사'로 명칭을 변경, 통일화한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국제시험으로 의미가 있다.

하화정 IAC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80시간이 넘는 교육을 기꺼이 감내한 응시생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고, 이어서 아프리카 3개국(가나, 우간다, 나이지리아)교육봉사 중인 박노원 자문위원의 동영상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였다. 내국인 16명, 외국인(몽골) 2명의 응시생은 세포병리 유리슬라이드 검경에 필요한 이론, 환등기, 현미경 3가지 종류의 시험을 IAC 규정에 맞추어 4시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감독관의 지도에 따라 진행하였다.

IAC의 국제세포전문자격증은 임상병리사로서 의무를 다한 2년 이상의 병리과 경력자가 수련교육을 통해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IAC 국제세포전문임상병리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추후 세포병리 관련교육으로 4년마다 평점을 갱신하면서 국제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포전문임상병리사 회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IAC 시험을 주기적으로 치러 왔고 내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외적으로는 전문임상병리사의 모범적인 주체로서 자리잡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아래 전문임상병리사의 한 축을 맡고있는 세포전문임상병리사로서 신명순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은 후학양성에 힘쓰고 앞으로 전문임상병리사 국가자격증이 명문화 하는 그날까지 '전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묵묵히 발전의 토대를 닦아 주제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의료진단검사학회 제1회 발전세미나 개최 임상병리학과 교수, 학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의료진단검사학회(Society for Medical Diagnostic Laboratory, SMDL)는 지난 10월 22일 대전보건대학교 취업-창업지원센터에서 '2022년 제1회 의료진단검사학회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의료진단검사학회 발전세미나'는 임상병리학과 교수자의 학술적 경쟁력 확보와 학생들의 실형 등 연구역량의 성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1만 여개의 학술단체 대열에 합류의 시작을 위해 의료진단검사학회지(Journal of Medical Diagnostic Laboratory, JMDL)의 발전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의료진단검사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안승주 회장은 축사로 '의료진단검사학회 발전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료진단검사학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을 통한 학회 발전을 주제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의료진단검사학회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고 창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동영상을 통해 인사를 전했다.

의료진단검사학회 양병선 학회장은 'COVID-19 감염증으로 어려운 시기의 교육 환경에서도 학생들을 위하여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득하며, 제1회 세미나의 개최 목적으로 학회의 발전방향 설정

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 학회장은 '논문 투고자들이 학회에 쉽게 접근하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도록, 심사자들 또한 쉽게 심사논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고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발전세미나는 대한임상병리학과학회 임건일(루카스바이오 주식회사 연구소장) 편집간사가 임상시험경력,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논문 저자, 연구윤리 지침 등의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진단검사학회 성현호 편집위원장의 의료진단검사학회 개요와 JMDL 온라인투고 시스템페이지 개발현황과 개요 소개, JAMS 3.0 진입 및 등재후보지 평가 준비 등을 소개했다.

양병선 학회장은 △윤리위원장, 안산대학교 윤기남 교수 △편집간사, 서영대학교 신환호 교수, △행정간사, 대구보건대학교 최우순 교수 △재무간사, 수원과학대학교 박미영 교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편집위원으로 동의대학교 정경태 교수, 임 용 교수, 대전보건대학교 이은주 교수, 김진수 교수 김성희 교수, 대구보건대학교 정세훈 교수, 청주대학교 이석준 교수, 경운대학교 김혜정 교수, 서영대학교 박상용 교수, 원광보건대학교 이준호 교수, 목포과학대학교 박호연 교수, 송호대학교 송창섭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박신영 교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양병선 학회장은 대한임상병리학회장 장인호 회장, 대한임상병리과학회 구분경 과학회장, 각 전공교수회 등 발전세미나를 위하여 후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과 참석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발전세미나를 마쳤다.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김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권창오 교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2대원장 임명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이하 임평원)은 지난 2022년 10월 27일(목) 17시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임평원 초대원장인 김충환(마산대) 원장을 이어 2대 원장으로 평가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김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권창오 교수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은 국내외 보건의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임상병리사를 양성, 배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국 54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임상병리학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외 보건의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임상병리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관리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권창오 원장은 지난 9월29일 제3차 임평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제 5차 운영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월 27일에 임명장을 공식적으로 수여 받았다. 권 원장은 현재 김천대학교 교무처장으로 대학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임상병리사교수협의회 산하 의료법규 및 공중보건 연구

회장과 감사로 활동중이며, 그간 임평원 상임위원장인 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임평원이 진행하는 평가는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과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영역, 교수영역,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등이 국가, 사회, 보건전문직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이다.

장인호 이사장은 "교육은 모든 산업 부흥과 발전의 기본이다. 임상병리사 양성에 있어서는 전국 54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등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상병리학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2대원장이 되신 권창오 원장을 중심으로 다함께 힘을 합하여 임평원이 보건복지부에 준비 중인 재단법인으로 연착륙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교육평가원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활약하며 국민 보건 증진에 앞장서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일자 안내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명	교육장소	일자
전라북도 임상병리사협회 제1차 보수교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웨비나	2022년 11월 26일 13시부터 18시까지
2022년 임상유전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2022년 11월 26일 13시부터 18시까지
대전시회 제2차 보수교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웨비나	2022년 12월 3일 14시부터 19시까지
경기도회 제2차 보수교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웨비나	2022년 12월 3일 14시부터 18시30분까지
충남도회 제1차 보수교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웨비나	2022년 12월 3일 14시부터 18시30분까지
경남도회 제1차 보수교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웨비나	2022년 12월 3일 14시부터 18시까지
부산시회 제2차 보수교육	경남정보대학교 미래관	2022년 12월 3일(상세일정 안내)
제31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웨비나	2022년 12월 3일 13시부터 18시까지
전북도회 제2차 보수교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웨비나	2022년 12월 17일(상세일정 안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최신화 중이니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허신고 Q&A

Q. 면허신고제도는 어떤건가요?

A. 면허신고는 보건의료인의 자격,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Q. 면허신고는 언제 진행 해야 하나요?

A. 최초 면허신고는 면허를 취득하시고 3년이 지난 해(예 : 2019년에 면허취득 > 2022년에 면허신고)에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그 후 3년을 주기로 면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Q. 면허신고는 어디서 신고가능한가요?

A. 면허신고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면허신고센터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면허신고 센터로 이동됩니다. 이 후 절차에 따라 면허신고를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Q. 보수교육 면제신청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A. 면허증을 새로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면허를 취득한 년도는 의료기사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면제가 되지만, 자동으로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꼭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면제신청 부탁드립니다.

Q.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이전 면허신고 이 후 면허신고 해당 전 년도 까지(예 : 2019년도에 면허신고 완료 2022년도 면허신고 진행을 위해서는 2019,2020,2021 3개년도의 면제 및 유예, 보수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함) 면제 및 유예, 보수교육이 모두 완료되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사전에 먼저 모든 진행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Q. 진행사항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면허신고는 '면허신고 필수교육'을 2시간을 이수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교육비 따로 없으며 협회 홈페이지 > 보수교육 > 온라인 보수교육 > 면허신고 필수교육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면허신고 필수교육까지 이수했음에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시 협회홈페이지 1:1문의, 문의메일,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보수교육을 이수했는데 면허신고센터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A. 면허신고센터는 정부 산하기관의 전산시스템으로 협회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수기로 순차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은 불가능 하지만 이수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2주일에서 4주일정도가 소요되며 면허신고에 필요한 보수교육부터 일차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Q. 면허신고센터 비밀번호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비밀번호 찾기가 진행이 안되신다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오랜기간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면허정지 처분은 면허신고 진행시 해소됩니다.), 그 이후 면허취소가 진행 됩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신고 부탁드립니다.

면허신고 특수 기간(11월부터 12월말까지)는 사무국에 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힘들실수도 있사오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잊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코젠바이오텍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진단키트

- ✓ WHO·CDC 지정 우려·관심 변이 스크리닝
- ✓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식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코젠바이오텍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C동 1110호(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전화 : 02-2026-2150 | 팩스 : 02-2026-2155

kogene@kogene.co.kr | www.kogene.co.kr

◆ 병리정보 기획연재 ③ (2022년 11월호)

사법부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알아보는 임상병리사 업무관련 용어 3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회원들은 업권(業權) 관련 용어를 의료법, 의료기사법, 면허체계의 의도와 취지, 업무범위를 기반으로 「사법부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이해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9월호를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기관, 의료행위, 진료행위, 의사 업무범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행위, 진료보조행위,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 의료기사제도, 임상병리사 업무행위, 일본 의료기사의 진료보조행위, 법률 현실과 괴리, 법률 위반 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지 않았기에 사안에 따라서 다르거나 틀릴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

⑨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等)

1.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1982년에 의무기록사, 1987년에 안경사가 추가되었는데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가 의료기사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1995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다.

⑩ 의료기사제도

1. 의료기사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에 의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란 의사의 지도하에 의사의 진료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진료에 필요한 검사를 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하였다.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支援)하는 업무로 국민보건과 관련된 이상 일정 자격자로 담당하게 함이다.

▶ 출처 : 헌법재판소 1996년 판결(94헌마129 및 95헌마121)

3. 대법원에 따르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였다.

▶ 출처 : 대법원 2002년 판결(2002도2014)

⑪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1. 임상병리사는 각종 화학적·생리학적 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가. 기생충학·미생물학·법의학·병리학·생화학·세포병리학·수혈의학·요화학·혈액학·혈청학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와 기초대사·뇌파·심전도·심폐기능 등(等)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 구분에 따른 업무

- 1)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
 -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 3) 기계·기구·시약 등이 보관 관리 사용
 - 4)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 나. 그 밖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

2. 일본 사례를 본다면, 후생노동성은 「진료보조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목적으로서 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는 의료행위로 해석한다. 다른 한편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규제의 해제”로 임상검사기사(= 임상병리사), 진료방사선기사(= 방사선사), 이학요법사(= 물리치료사), 작업요법사(= 작업치료사), 시능훈련사(우리나라에는 없음), 언어청각사(= 언어재활사), 구급구명사(= 응급구조사), 임상공학기사(= 의공학사), 의지장구사(= 의지보조기기사) 등도 개별법에 따라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와 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 일본 보건의료인력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보건의료인력	진료보조행위
임상검사기사법 제20조의2	검체 채취, 채혈, 생리학적 검사
진료방사선기사법 제24조의2	자기공명화상검사, 초음파검사, 인자사진촬영검사 등
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법 제15조	전기자극, 저주파치료 등
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법 제15조	정신질환치료의 일부작업
치과기공사법 제18조	병·의원에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시
치과위생사법 제2조 제2항	치과진료의 보조
시능훈련사법 제17조 제2항	양안시기능 회복을 위한 교정훈련 및 이에 필요한 검사 및 안과검사
언어청각사법 제42조	연하훈련 등
구급구명사법 제43조 제1항	구급구명장치
임상공학기사법 제37조 제1항	생명유지관리장치의 조작
의지장구사법 제37조 제1항	의지장구 장착부위의 채형, 신체에의 적합

- ▶ 출처 : 그 밖의 타의료관계직종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규정, 일본 후생노동성.
- ▶ 출처 :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적 정리, 일본 의사회출판정책연구소, 2016년
- ▶ 출처 : 정형선, 일본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20(1):44-55.
- ▶ 출처 : 원상철, 간호사의 업무로서의 '진료의 보조행위'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2021;9(3):43-58.

※ 한국, 일본 임상병리사의 생리학적 검사 업무범위 비교

한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업무범위 등)	일본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업무)
1) 기초대사 2) 뇌파 3) 심전도 4) 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검사	1) 심전도검사 2) 심음도검사 3) 뇌파검사 4) 근전도검사 5) 운동유발전위검사 6)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7) 기초대사검사 8) 호흡기능검사 9) 맥파검사 10) 열화상검사 11) 안진전도검사 12) 중심동요계검사 13) 지속피하혈당검사 14) 초음파검사 15) 자기공명화상검사 16) 인자사진검사 17) 모세혈관저항검사 18) 경피적 혈액가스 분압검사 19) 청력검사(주파수 및 청력레벨 검사는 제외) 20) 기준후각 및 정맥성미각검사(정맥주사하는 행위는 제외) 21) 전기미각 및 여과디스법에 의한 미각정량검사 22) 직장항문기능검사
1990년 생리학적 검사에서 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로 구체적으로 명시	1970년 채혈 및 생리학적 검사 업무를 추가
1993년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1971년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구본경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회장)



학술활동과 자기개발 · 장상우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고문

I. 학술 활동의 범위 ·

학술 활동은 새로운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전파하는 활동으로 논문이나 학술 발표는 상호간 지식·정보 공유의 일환이다. 학술활동은 학술단체가 주관해 진행하거나, 전문기관에서 세미나·연수회·심포지움등에서 다양한 학술발표나 강의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학술 활동은 학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발전한다. 예를 들어 대한임상검사과학회는 산하에 각 분과학회를 두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미국경영학회의 경우 산하에 미국품질관리학회와 미국공업경영학회를 두고 세분화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있다. 학문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활동하는 학회, 협회등에 참여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유리한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다.

II. 학회 참여의 범위 ·

학술 대회는 강의, 심포지움, 논문게재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 학회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험을 통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해 전문지식을 나누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학술 발표는 연구 활동들이 포함된다.

올바른 학회 활동을 위해서는 연구논문이나 발표활동들이 진실성과 객관성이 근거되어야 한다. 발표는 객관화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해당 학술대회를 통해 전문지식을 공유해 학문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III. 논문 심사자의 설득방법 ·

전문학회의 논문 심사자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전문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발표해 인지도를 높이고 학회에 임원이나 위원회 참여로 봉사한다면 해당 학회 논문 심사자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개별심사자의 심사규정을 제정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고 하나의 논문을 심사할 때도 객관성을 위해 다수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논문 제출자는 심사자의 개선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리한 개선을 요구하면 그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신의 합리성을 설득시키는게 중요하다.

전문학회의 논문심사자로 참여한다면 최근의 연구동향과 최신 지식 정보 습득에 큰 도움이 된다.

IV. 국제 학회의 동향 파악 ·

국제 학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협회, 학회에 참여하면 국제 학회에 대한 정보를 습득 가능하다. 보통 처음에는 해당 학회지(Journal)만 구독해 얻은 정보가 본인에게 유익했다면 정식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학회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는 학회도 있지만, 자격증과 무관하게 개방하는 학회도 많다. 또한 학술 활동 내역에 따라 등급이 상승하는 학회도 있다.

국제학회 위에는 대개 세계학회가 있으며, 세계학회의 경우 개방적인 학회가 많으며, 국가 간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 글로벌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의 세계 학회로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IFBLS)가 있으며 제35회 세계임상병리사연맹총회(IFBLS)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가 수원에서 열렸다.

Above and Beyond

An integrated CBC + ESR analyzer





healthcare within reach



보건복지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응 체계 점검 및 준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대비 방역과 관련해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 ▲출입국 정상화 현황 및 방역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조규홍)로부터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중증화에 가장 취약한 소아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외래 진료기관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 배포, 자체 방역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 정상화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원활히 연계해 지역내 병상 정보 공유 활성화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히 응급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 진료 후 검사 실시 및 신속검사 활용이 있다. 위와 같이 진료기관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 정부는 주간 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 환자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운영 상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원스톱 진료기관(코로나19 검사부터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2,483개 약 33%의 의료기관이 시,공간 구분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며, 남은 기관은 일반격리병상 현황 안내 및 직접 입원 의뢰를 실시해 입원 연계를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했다. 현재 1만 2천여개의 일반격리병상이 대기중에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장 백경란)은 코로나19가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개월간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자에게 팀플스테이 할인, 고공 및 능원 무료 입장 등의 문화체험 혜택등을 제공하는 등 접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일화학은 고객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진단의학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합니다.

- 중대형병원의 중앙검사실 자동화
- 중소병원의 검사실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최고의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서비스
- 40여년간 진단의뢰기기 시장과 함께 성장해온 경험과 노하우



- CHEMISTRY
AU5800, DXC700AU
- IMMUNOASSAY
DXI800, ACCESS2
- HEMATOLOGY
DXH500 Series, DXH900, DXH AUTOMATION
- SERUM PROTEIN
IMMAGE 800
- HEMOSTASIS
ACL TOP / 350CTS, 550CTS, 750CTS, 750BASIC, 750LAS
HEMOCELL AUTOMATION, ACL ELITE PRO
- MICROBIOLOGY
BACTEC FX, MGIT320, MGIT960
- MOLECULAR DIAGNOSTICS
T2BIOSYSTEMS, OPTOLANE
- LAB AUTOMATION SYSTEM
-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 SPECIMEN COLLECTION
BD Vacutainer Tube, ABG Syringe



A.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6길 24

원숭이두창 국내 3번째 확진자..... 무증상 입국한 내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 3개월 만에 국내 확인 입국 나흘 후 증상 11일 만에 확진판정

원숭이 두창의 국내 3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monkeypox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지난 11월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가 원숭이두창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11월 8일 발열, 발한,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며 11월 13일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으로 경기도 소재병원에 내원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 중대본은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수행해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은 현재 방역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여행하는 국민들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하며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원숭이두창의 첫 번째 확진자는 6월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이 후 감염력이 소실돼 격리 18일 만에 퇴원했다. 두 번째 확진자는 8월 유럽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마찬가지로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월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상태로, WHO는 11월 1일 국제 보건 긴급 위원회를 통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 의견에 동의하며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원숭이두창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대응에 진전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파가 진행 중이며, 나라별 대응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을 유지한다"고 전했으며, "의료 취약 지역에 더욱 악영향을 주기 쉬운 점과, 감염 환자가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할 경우 감염을 숨기고 치료를 회피해 추가 전파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씨젠의료재단 창립 32주년 기념식 개최

32th

질병검사 전문의뢰기관 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중기)이 10월26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창립32주년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기념식은 천중기 이사장을 비롯해 한규섭 대표이로 원장·강신광 대표 병원장등 부문별 주요 보직자들과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호남·대전충청검사센터의 대표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CQI 경진대회·2022년 사 진공모전·장기근속상 시상과 창립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서울 본원과 지역검사센터에서 하루 30만 명의 진단 검사가 가능한 검사시스템을 구축 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LIS 및 ERP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있고, 아시아·유럽·북미 등에 검사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질병검사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는 혁신적인 검사법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천중기 이사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오늘은 우리재단이 질병검사 전문의뢰기

관으로 창립하여 도전과 발전을 거듭해 온 지 32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우리재단이 국내 최고의 검사센터로 자리매김한 것은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이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임직원 모두를 격려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해, 우리 모두가 씨젠의료재단을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며 도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 2022년 12월 1일(목) 18:00까지 전송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77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병리협보 기획연재 2

사법부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알아보는 임상병리사 업권관련 용어2

● **이순임 12837** : 이번호 기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기사는 「 사법부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알아보는 임상병리사 업권관련 용어2 」였습니다. 꼭 의료계통이 아니더라도 직능간 갈등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능별 업무관련 범위에 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의료기관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달 10월 5일에서 9일까지 개최된 IFBLS 2022 세계임상병리사연맹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층에 마련한 총 59개 업체가 참여한 임상병리관련 기기 및 장비 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검사 정보도 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Patients are counting on your results

With high performing assays, the Atellica Solution will help you deliver them



아텔리카 사용자를 위한 정기 온라인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에서 2021년 5월부터 아텔리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다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아텔리카 온라인 세미나'를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개최되는 정기 세미나는 코로나 항체검사 (sCOVG) 업데이트, ELF Test in Diagnostic Pathways, Atellica New UI introduction 등에 대한 사용경험과 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텔리카 사용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방법

아텔리카 온라인 세미나는 팀즈 (Teams) 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우측 QR code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며, 또는 등록 담당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참석 방법에 대하여 안내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동정



김 성 현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부산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김성현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가 부산, 경남지역의 과학 수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과학수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과학수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광주호남검사센터



대구경북검사센터



대전충청검사센터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최고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질병 진단과 예방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국내 최대의 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 및 지역 검사센터에서
 신속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최다 검사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집중 조명



지역사회 검체 역량 강화 기여



씨젠의료재단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대전충청검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38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ical.com